

지역·글로벌·나눔... '동행축제' 지난해 매출 4.5조 목표 초과

내란 사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 12월 행사 매출 8089억원 '선방'

광주 우수제품 할인전·전남 특산품 기획전...소상공인 매출 증대

국내 최대 규모의 내수 촉진 행사 '동행 축제'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행 축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유통 대기업은 물론 전통시장과 라이브커머스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12월)는 8089억원의 매출

을 기록, 5월(1조2974억원)과 9월(2조 4284억원)을 합해 총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 12월 동행축제는 12·3 내란사태로 가뜰이나 움츠러든 소비심리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12월 동행축제는 네이버 쇼핑과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 특별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 5359억원을 올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특판전,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769억원을 기록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17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17억원이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상생'과 '나눔'을 키워드로 지역 특산품 기획전이 진행돼, 나주 배 과일집, 장성 사과, 영암 황토고구마, 완도 전복, 신안 꾸지뽕 등 전남의 우수 특산품을 선보였다.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동행 축제 특별 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됐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 소상공인 우수제품 할인전'을 열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우수제품을 선보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수 소상공인 16개 점포가 참여해 소공인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간식거리, 두피·모발 관리용품

을 판매했다.

12월 동행축제는 참여 기업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 소매협동조합은 기획전에서 '티엔미미 홍콩식 토마토담면 밀키트'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어난 약 2억5000만원 매출을 기록했다. 한입 닭갈비 제품을 판매하는 성화푸드는 12월 한 달 매출이 전년 동기 보다 17배나 상승하기도 했다.

지난해 동행축제는 '지역' (5월), '글로벌' (9월), '나눔' (12월) 등 회차별 다른 컨셉으로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을 이어갔다.

특히 9월에는 최초로 개막행사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수출 상담회와 팝업스토어 등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 등에게 우수 제품을 선

보이면서 소상공인의 해외판로 개척의 기틀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동행축제에 함께해준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10개 기업에 대한 시상을 9일 진행했다. 고객평가단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사에게는 동행 트로피를 수여하기로 했는데, 전남에서는 찻할 약과 생산기업인 '호정식품'이 수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2024년 한 해 소상공인과 함께한 여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동행 축제를 통해 경제력을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특별자금 6000억원 지원

신규자금 3000억·만기연장 3000억

광주은행이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28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은 노무비,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 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요청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3000억원, 만기연장 3000억원 등 총 6000억원으로,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30억원 이내다. 광주은행은 신규자금에 한해서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지역 업체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이 광주은행 여신전략부장은 "이번 설명절 특별자금대출 지원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발매된 금융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자금 유

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윤경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전남 소상공인 44% "지난해 매출 증가"

65.9% 금리 5.0% 넘어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매출 보유자 590명 가운데 34.9%는 2023년 대비 매출액이 늘었다"고 밝혔다.

매출액 증가는 전라권(44.3%)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용 중인 대출 금리 평균은 4.99%였고, 금리가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65.9%에 달했다.

구간별로 보면 '5.0%'가 38.6%로 가장 많았고 '5.1% 이상' 27.3%, '4.0~4.9%'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80.8%로 가장 많이 꼽혔고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대상 소상공인 55.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것이라 답변은 39.5%였고, 긍정적이란 전망은 5.0%에 그쳤다.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와 내수 침체, 대출 상환 부담,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93.5%는 폐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는 분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기업 1위

한전KDN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공기업 1위를 기록하고,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효율성 확보로 공공기관의 공익 의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전KDN은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99.71점을 획득, 공기업 1위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공기업들

의 평균(96.18점)을 상회하는 수치로, 전체적인 정보공개 수준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하고, 직접 생산한 정보목록 및 원문정보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특히 임원급 이상의 결재 문서를 100% 원문공개하는 등 높은 정보목록 공개율과 기존에 목표로 한 사전정보공표 등록 비율을 초과 달성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조직 전체가 대국민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결과"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경 기자 zzang@

GGM 신입사원 입사식...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서약

37명 3개월 인턴 끝내고 입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8일 37명의 신입사원 입사식과 함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식을 개최했다.

올해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와 서류 전형,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인턴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3개월 간 인턴십 과정을 거쳐 지난 7일자로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신입사원들은 이날 "우리는 GGM의 설립기반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상생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속 결의, 적정 임금 관련 부속협정서를 차질없이 준수한다"고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에 서약, 다짐했다.

GGM의 탄생 배경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 전까지 상생협의회에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협의하고,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큼 임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



업들이 GGM에 출자 및 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발판이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최근 신년사에서 협정서는 GGM 설립의 근간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했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어려운 취업난 속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기둥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GGM은 광주시민들의 세금과 지역 기

업들의 투자로 힘들게 만들어진 소중한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태생적으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지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된다. 반면 잘 지키면 어느 회사보다도 발전할 수 있다"며 "회사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취지에 맞게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지켜야 하는 것을 명심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12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관공구 수원문화체육센터 공영장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보상 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남산단과 광주송정 KTX 선도지구, 금호타이어 이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지 및 생활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산정 지구는 지난 2023년 7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끝마쳤다. 올해 토지 및 지장물 등 기본조사를 착수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한국 글로벌 조선 수주 점유율 17%

2016년 이후 최저...중과 54%P 차

지난해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영국 조선해운사황 전문기관인 클락슨리서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 수주량의 17%인 1098만CGT(표준선 환산톤수·250척)를 수주했다.

수주량은 2023년 대비 9% 증가했으나 글로벌 점유율은 20%에서 3%포인트 줄어 들었다.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2016년(15.6%) 이후 처음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4645만CGT(1711척)를 수주해 전 세계 수주량의 71%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수주량은 58%, 점유율은 11%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한중 간 점유율 격차는 2023년 40%

포인트에서 지난해 54%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해 전 세계 수주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6581만CGT(2412척)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글로벌 수주량은 194만CGT(86척)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이중 중국이 166만CGT(67척·86%)를 수주했고 한국이 7만CGT(3척·4%)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수주 잔량은 전월 대비 167만CGT 증가한 1억5717만CGT다. 중국이 9078만CGT(58%), 한국이 3787만CGT(24%)다.

클락슨 신조선가치수는 작년 말 189.16으로 11월(189.18)보다 0.02 떨어졌다. 전년 동기보다는 6% 상승한 수준이다. 선종별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억6000만달러, 초대형 유조선 1억2900만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 2억7500만달러다. /연합뉴스



기아, 호주오픈 후원 친환경차 130대 전달

브랜드 알리기 글로벌 캠페인

기아가 8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파크에서 2025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공식 차량 전달식을 개최했다" 밝혔다. <사진> 전달된 차량은 EV5(15대), EV6(10대), EV9(25대) 등 총 130대로 대회 기간 선수들의 이동과 행사 운영에 활용된다.

호주오픈 공식 차량이 친환경차만으로 구성된 것은 기아가 2002년 공식 후원을 맡은 이래 처음이다.

이 밖에도 기아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 호주오픈을 브랜드 마케팅의 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기아는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이자 기아 글로벌 홍보대사인 라파엘 나달이 출연하는 영상을 비롯한 브랜드 캠페인 영상 6편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또 우버의 프리미엄 서비스인 우버원 회원을 대상으로 EV 시리즈 시승 체험 프로모션을 열고, 총

10팀의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팀에 기아 전기차를 제공한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호주오픈 최강기 공식 스폰서로서 올해는 EV9을 포함해 전 차량을 친환경차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더 많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1.05 (+28.95)
↑ 코스닥	719.63 (+1.34)
↓ 금리(국고채 3년)	2.505 (-0.003)
↑ 환율(USD)	1459.65 (+6.15)
<small>(오후 5시 55분 기준)</small>	